

濯纓 金駟孫과 道東書院

조 항 덕*

<目次>

- | | |
|-----------------|---------------|
| I. 緒言 | III. 천안의 도동서원 |
| II. 탁영 김일손에 대하여 | IV. 結語 |

<국문 초록>

本考는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 1464~1498)과 그를 모셨던 충청도 목천(木川)에 있었던 도동서원(道東書院)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있다. 나아가, 천안(天安)의 발전을 위해 본받아야 할 위인으로서 선비정신의 표상이 되는 탁영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이제는 흔적만이 남아 있는 도동서원이 복원되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전통적 도의(道義)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15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사회는 낡고 병든 보수적 정치세력인 勳舊派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덕과 사회질서의 확립을 요구하는 변혁의 시기였다. 이 같은 현실에서 탁영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절개와 士林의 도덕관으로 새로운 정치사회의 질서구현을 위한 선봉자적 역할을 자임하였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재였다. 유교적 家風 속에서 김종직의 학맥을 계승하였으며, 의리(義理)와 명분(名分)을 강조하는 역사의식의 소유자로 성장하였고, 또 벼슬길에 들어서서는 10여 년간 언관직(言官職)과 시종직(侍從職)을 두루 거치면서 정치 전반에 걸쳐 높은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또한 정치의 요

* 천안 중앙고등학교 교사 / whgkdejr@yahoo.co.kr

체를 안민(安民)에 두고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추구한 선비로서 항상 민중의 입장에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하여 국가의 정기를 회복하고 중흥(中興)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였다.

비록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인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짧은 생애 속에서 남긴 탁영의 행적은 시대의 고민과 저항의식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가 남긴 탁영금(濯纓琴)은 선비의 풍류를 상징하는 보물을 대표하고 있고, 참혹한 변고를 겪고 남아 있는 아주 적은 유저(遺著)만으로도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다.

도동서원은 조선 인조(仁祖) 때 충청도 목천(木川)에 건립된 서원이다. 『탁영연보(濯纓年譜)』에 의하면, 탁영은 24세 되던 성종 18년(1487) 4월에 첫 번째 부인 우(禹)씨를 잃고, 2년 후인 성종 20년(1489) 7월에 호서(湖西) 목천에서 김미손(金尾孫)의 따님 예안 김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이로부터 인연이 되어 목천(지금의 천안)에 연고를 두게 되었으며, 성종 23년(1492) 작성산(鶴城山) 계곡에 있던 작은 별서(別墅) 인근에 죽림정사(竹林精舍)를 지었다고 한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서원이 서게 된 것은 한강 정구(鄭述, 1543-1620)가 만년에 강사를 세우려고 터를 닦다가 ‘죽림(竹林)’이라는 석각(石刻)을 발견하고, ‘죽림정사(竹林精舍)’를 지은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주자(朱子)를 제향하는 사우를 함께 세웠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차례로 탁영 김일손과 한강 정구를 배향하였으며, 인조 기축년에 이 지역 출신의 후천 황종해(黃宗海, 1579-1642)를 배향하였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과 병천면에 걸쳐 있는 은석산의 남동쪽 계곡에는 도동서원(道東書院)이 있었던 서원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개목’으로 불렸는데 인조 때 도동서원이 들어선 후 서원리가 됐다가 병천리에 편입되어 현재는 마을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주제어】 탁영 김일손, 무오사화, 도동서원, 죽림정사, 한강 정구, 후천 황종해

I. 緒言

충청도를 흔히 충절의 고장이라고 한다. 특히 그 중심이 되는 천안시의 경우에는 유관순을 상징한 햇불남자를 내세워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지나간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는 기본적인 노력에 충실한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우리 역사는 평화롭고 영화로운 때 보다는 뼈를 깎는 비애와 인고의 세월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저력야말로 참된 역사의 숨결이며, 오늘에 되살려 기어코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민족적 유산이다.

탁영 김일손(金駟孫 : 1464-1498)은 무오사화(戊午士禍)에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로 당대 최고의 인재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처형되었다. 비록 시기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면이 있지만, 후대에 억울한 희생자로 신원됨으로써 정당한 역사적 위치를 찾게 되었다. 본래 경북 청도 출신인 그가 충청도 천안에 연고를 두게 된 것은 두 번째 부인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다. 시대를 대표하여 역사를 고민했던 선비의 삶을 돌아보고, 그가 맺은 인연의 끈을 돌아보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과 함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도동서원(道東書院)은 본래 우리나라에 유학의 도(道)가 전해진 것을 기념하는 이름인데, 같은 이름을 가진 서원이 전국 여러 곳에 전한다. 그중에 이곳 천안에 이제는 없어져 안타깝게 흔적만으로 전해지는 도동서원은 탁영이 휴양과 동시에 학문을 수양하던 곳으로, 처음에는 죽림정사(竹林精舍)라 불리웠다. 조선 인조(仁祖) 때에 한강 정구(鄭述 : 1543-1620)가 발의하고, 지역 선비인 후천 황종해(黃宗海 : 1579-1642)가 주도하여 정식 서원의 규모를 갖추었다. 숙종 2년(1676)에 사액(賜額)되어 유지되어 오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8년(1871) 훼철

되었으며,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하였다.

이제 풍요로운 현대를 맞이하여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정신문화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천안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던 탁영 김일손과 그를 모셨던 도동서원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보고, 이를 계기로 아쉽게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도동서원의 복원과 그 활용에 방안에 대하여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¹⁾

II. 탁영 김일손에 대하여

탁영 김일손의 호인 탁영(濯纓)은 ‘갓끈을 씻는다.’는 뜻인데, 이는 굴원의 「어부사」에서 따온 말이다. 본래의 말은 ‘세상이 맑을 때에는 갓끈을 씻어 속세에서 벼슬을 할 것이지만, 세상이 혼탁할 때에는 우선 자신의 발을 씻어 속세를 떠나라.’는 충고였다. 그런데 그가 탁영을 호로 삼은 것에는 ‘창량의 물이 맑을 때를 기다려서 갓끈을 씻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갓 끈을 씻을 수 있도록 창량의 물을 깨끗하게 하겠노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1. 당대 최고의 인재

우리가 탁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조카인 삼죽당 김대유(1479-1551)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탁영선생 연보』를 통해서이다.

탁영은 세조 10년(1464) 1월 7일 오시(午時) 경상도 청도군 상북면 운계리 소미동(현재 이서면 서원동) 옛집에서 아버지 남계공(南溪公)과 어머니 용인(龍仁) 이씨(李氏)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 다행스럽게도 최근 지역사회와 문증을 중심으로 복원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8세 때인 성종 2년(1471), 아버지가 서울로 부임하자,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용인 압고지(蒲谷面 鴨阜里)의 옥수정사(玉樹精舍)에서 두 형과 함께 공부하였다.

15세인 성종 9년(1478) 2월에 반궁(泮宮 : 성균관)에 들어갔다. 목계(木溪) 강혼(姜渾)역시 선생과 같은 나이로 이때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과 깊이 사귀었다. 3월에는 서호(西湖) 단양(丹陽) 사인동(舍人洞)에서 단양(丹陽) 우씨(禹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16세인 성종 10년(1479)에 형님인 매헌공(梅軒公)과 함께 한성부(漢城府) 진사(進士) 초시(初試)에 합격하였지만, 이듬해 봄에 이어서 열린 복시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다.

18세인 성종 12년(1481)에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오는 아버님을 모시고 운계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9월부터 점필재(佔畢齋)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受學)하였다.

20세인 성종 14년(1483) 9월에 아버지 남계공(南溪公)의 상(喪)을 당하였다.

22세인 성종 16년(1485) 12월에 복을 벗었다.

23세인 성종 17년(1486) 봄에 청도군학(淸道郡學)이 되었다. 9월에 식년(式年) 정시(庭試) 문과(文科) 초시(初試) 3장(場)에 연달아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며, 10월에는 복시(覆試) 대중흥책(對中興策)에 합격하였다. 이어서 전시(殿試)에 나아가 「친현원간잠(親賢遠奸箴)」을 지어 올렸고, 드디어 11월에 갑과(甲科) 제 2인으로 급제증서를 받고 출신(出身)하였다. 탁영이 처음 받은 벼슬은 사대교린의 문서를 맡아보던 승문원의 무공랑(務功郎)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이었으며, 곧바로 겸하여 국가의 시정을 기록하던 춘추관의 기사관에 승진 임명되었다.

24세인 성종 18년(1487) 4월에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 고향에 내려와 있던 중에 부인 우(禹)씨의 상을 당하였다.²⁾ 인하여 9월에 상소하여 걸

2) 안인(安人) 우씨는 1462년 출생하였으니, 향년 26세였다. 매우 어질고 효성

양(乞養)하였는데, 10월에 진주목학(晋州牧學) 교리(敎理)로 임명되었다.

25세인 성종 19년(1448) 봄에 진주목사(晋州牧使) 경태소(慶太素)를 비롯한 관리 등 21인과 더 붙어 축석루에서 수계(修稷)하였는데, 선생이 그 서문을 지었다.

26세인 성종 20년(1489) 4월에는 일두(一蠹)와 함께 두류산(頭流山) 유람에 나섰다. 6월에 여러 차례의 조정의 부르심에 비로소 배명(拜命)하였으며, 옥과현감(玉果縣監)에 부임하는 최탁경(崔倬卿)을 전송하였다. 7월에 호서(湖西) 목천(木川)에서 예안 김씨를 재취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8월에 이주(李胄)와 더불어 경연에 입시하여 사관이 기사하는 규범에 대하여 주청하였으니, 이로부터 기사관이 앉아서 기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10월에 탄핵을 받아 금녕(金寧 : 김해)에 유폐되었으나, 곧바로 왕은(王愍)을 입어 방면, 고향집으로 귀환하였다. 11월에는 요동 질정관(質正官)으로 제수하는 특별 교지가 내려 역마로 상경하여, 즉시 배명하고 다음 날에 조정에 고별한 후 곧장 출발하였다.³⁾

27세인 성종 21년(1490) 3월에 연경으로부터 귀국하여, 비현각(丕顯閣)에서 임금을 뵈고 복명(復命)하였다. 3월에 낙산(駱山)의 원정(園亭)을 하사하는 교지가 있어 고사하였으나 윤택되지 않았다. 이어서 통선랑, 승정원(承政院) 주서 겸 예문관 검열에 제수됨에 세 번씩이나 소를 올려 명을 거두어줄 것을 주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비로소 정중히 사례하고 경연에 입시하여 노산군(魯山君) 후사(後嗣)를 세울 것을 주청하고, 다시 사임 소를 올렸으나 모두 윤택되지 않았다. 이즈음에 사관(史館)에 입직하여 사초(史草)를 닦으면서 김종직(金宗直) 선생의 「조의제문」을

스러우며 인자하고 성실하여 시부모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불행하게도 요절하니 향리 일가친척들과 이웃들이 통탄하고 애석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 3) 중국의 황제는 요동도사에게 유시하여 “장차 요동민으로 하여금 책임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짓거나 같이 거주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진력하라. 비석을 세워 금지조항을 약정하고 종족의 혼거(混居)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고치도록 하라.”하였다고 한다.

수룩하였다. 4월에 『육신전(六臣傳)』을 완성하였다. 5월에 영산(靈山 : 현재 창녕 영산면) 부로(父老)들의 부탁으로 신담(申澹)의 생사당기(生祠堂記)를 지었다. 9월에는 추강과 함께 삼각산에 있는 설잠(雪岑)스님 김시습(金時習)을 방문하였다. 11월에는 본직을 가진 채 진하사(陳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임명되어 두 번째로 명나라에 가게 되었다.

28세인 성종 22년(1491) 1월에 연경(燕京) 오만관(烏蠻館)에 체재하였으며, 2월에는 예부(禮部) 원외랑(員外郎) 정유(程愈)를 만나 『소학집설(小學集說)』을 얻었다. 3월에 귀국하여 복명하고, 『소학집설』을 진상하니 주상은 교서관(校書館)에 하명, 인쇄하여 전국에 반포하게 하였다. 3월에 전 직함에 겸하여 사간원 정언이 추가로 제수됨에 사양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취임하고 차자(笥子)를 올려 정사를 논한 후 귀근(歸覲)할 것을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5월에는 북정도원수(北征都元帥) 종사관(從事官)으로 부름이 있었다. 5월에 본직으로 교서관 박사(博士)에 보직하고 강목 교수청(校讎廳)에 예속시키는 교지가 내려 고사하였으나, 또 부름이 있어 6월에 비로소 배명하였다. 8월에 전직에 겸하여 병조좌랑이 제수되고 거듭 강목교수(綱目校讎) 직임에 임명되었으며, 9월에는 겸하여 이조좌랑(吏曹佐郎)이 제수되었다. 10월에 중훈대부(中訓大夫) 충청도사(都事) 겸 춘추관 서기관이 제수되었다. 이 때 밤에 흰 무지개가 달을 관통하는 현상이 생겨 임금은 직언을 구하는 교지를 내렸는데, 소를 올려 소릉(昭陵) 복위를 주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29세인 성종 23년(1492) 1월에 목천에 있는 별서(別墅)에 갔다. 3월에 다시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상소하여 사가독서를 청하였다. 4월에 종전에 직함을 더하여 수찬(修撰)직이 다시 제수되었고, 5월에는 단오 칙자 12장을 응제(應製)하였다. 8월에 종전 직함에 겸하여 성균관 직강(直講)이 제수되었으며, 9월에 점필재 김종직의 부음이 다다라 글을 지어 요곡(遙哭)하였으며, 예에 따라 심상(心喪)을 행하였다.

30세인 성종 24년(1493) 1월에 홍문관 교리(校理)에 승진하는 발령을 받았다. 이어 반유어사(頒諭御史)의 특명을 받게 되어 가는 길에 고향에

귀성하였다. 도중에 용인관(龍仁館)에 유숙하면서 정광필(鄭光弼)과 시사(時事)를 논하였다. 5월에 편전에서 주상을 뵈고 복명한 다음 백성들의 민생고에 대하여 조목조목 아뢰고 거기에 관련된 시정을 논하였다. 전직함에 겸하여 사헌부 지평(持平)이 제수되었다. 7월에 본직으로 예문관 응교를 맡고 사가독서 하도록 교지가 내렸다. 탁영은 이 시기에 「추회부(秋懷賦)」를 지어 자신의 뜻을 밝혔다. 10월에는 무풍부정(茂豐副正) 이충(李摠)이 내방, 거문고 곡(曲)에 대하여 논하였다.

31세인 성종 25년(1494) 1월에 종전 직함에 겸하여 의정부(議政府) 검상(檢詳)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5월에 다시 홍문관 교리, 지제교, 수예문관(守藝文館) 응교로 문신 겸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다. 9월에 이조정랑, 지제교 겸 승문원 교리, 경연 시독관, 춘추관 기주관이 제수되고 역마를 타고 속히 부임하라는 영이 내렸다. 12월에 경연에 진강(進講)하여 대학연의(大學衍義)에 관하여 강하고 하사주를 받았다. 24일에 안타깝게도 성종대왕의 승하(昇遐)를 당하여 예에 따라 복상(服喪)하였다.

32세인 연산군 1년(1495) 2월에 질환(疾患)이 있어 사직을 주청하였으나 윤택되지 않았다. 3월에 상소하여 10개 조목의 경계해야 할 사항을 진언하고, 인하여 면관(免官)을 주청하였으나 회답이 없었으므로, 스스로를 탄핵하며 직명(職名)을 깎고 향리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주청하는 소를 올려 윤택을 받았다. 제천현(提川縣)을 지나면서 권자범(權子汎)을 방문하고, 「치현기(癡軒記)」를 지었다. 드디어 고향에 돌아와 칩거하였으며, 10월에 강한 바람이 불 때 굳센 풀이 눈에 뛰는 뜻으로 ‘간난(艱難)’을 당하여 비로소 굳은 절개를 알게 됨’을 비유한 「질풍지경초부」를 지었다.

33세(1496년) 연산군 2년 1월에 재촉하여 부르는 교지가 또 내려 역마를 타고 상경, 성 밖에서 묵고 배명한 다음 시정(時政)에 대한 상소문을 직접 올리고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곧이어, 간료(諫僚)들과 더불어 차자(筭子)를 올려 소릉복위(昭陵復位)를 주청하였으나 윤택

를 받지 못하였다. 27일 밤 문종(文宗)의 묘실(廟室)에서 불빛이 나타난 일이 생겨 다음날 상소하여 전에 올린 차자(劄子)의 내용을 다시 품신했는데, 회답이 없어 또 상소하고 사직하였으나 윤택되지 않았다. 3월에 모부인 용인 이씨(李氏) 상을 당하여 거상하였다.⁴⁾ 5월에 이부인(李夫人)을 남계공 원편에 부장(附葬)하였다.

35세인 연산군 4년(1498년) 1월에 임금의 음탕하고 포학함이 날로 심해 진다는 소식을 듣고, 중사의 장래가 위태롭다고 느껴 근심한 나머지 「유월궁부(遊月宮賦)」를 지었다. 6월에 복(服)을 벗었다. 병중에 있는 부모님을 뵈도록 김숙인(金淑人)을 목천(木川) 번곡(蕃谷)에 보내고, 분산(김해) 별서(別墅)에 머물면서 「함허정기(涵虛亭記)」를 지었다. 이어서 함양(咸陽)에 가서 일두(一蠹)를 방문하였다. 그리고는 풍질(風疾)이 있어 청계정사(靑溪精舍)에서 조양하였다. 7월에 「취성정부(聚星亭賦)」를 지어 일두(一蠹)에게 보였다.⁵⁾ 이 때에 사기(史記)의 일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의금부에 갇히고 밤에 대궐 뜰에서 국문을 받은 다음, 1498년 7월 27일 능지처사의 화(禍)를 입었다. 탁영은 향지(嚮之 : 권오복), 자범(子汎 : 권경유), 중옹(仲雍 : 이목), 문병(文柄 : 허반)과 더불어 담소하며 평일과 같이 평온하고 의젓한 자세로 형장에 나아가니 때는 오정(午正) 일각(一刻)(낮 12시 15분)이었다. 이 날 온 천지가 그믐같이 캄캄하고 음침한 구름이 사방을 뒤덮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대풍이 동남쪽에서 일어나 나무를 부러뜨리고 기왓장을 날렸다고 한다. 도성 안의 남녀치고 엎드려 별별 떨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고향 운계(雲溪)의 냇물은 3일 동안 핏빛

4) 부인은 형조참의 양(讓)의 따님으로 1424년(세종 6) 탄생하였고 세종 26년에 남계공(南溪公)에게 시집와서 이제 향년 73세로 졸하였다.

5) 탁영은 일두(一蠹)와 더불어 밤낮으로 학문을 강마하거나 대화하곤 하였는데, 말씀이 시사(時事)에 이르러서는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부(賦)를 지어 보이며 말하기를, “옛날 주선생(朱子)이 취성정찬(聚星亭贊)」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아마 말하려는 뜻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이 또한 나의 우의(愚意)이다.”라고 했다.

으로 흘렀다고 전한다.

양주(楊州)의 석교원(양주 남쪽 50리)에 임시 장례를 지냈는데, 중종반정 이후인 1506년(중종 1년) 9월 세원(洗冤)과 관작(官爵)을 회복하는 교지가 내려지자, 10월에 목천(木川)의 작성산(鵲城山)에 개장(改葬)하였다가, 2년 후인 1508년(중종 3년) 8월 수야산 술좌의 언덕에 반장(返葬)하였다. 1834년(순조 34년) 6월 ‘문민(文愍)’으로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1872년(고종 9년) 10월 목천 작성산(鵲城山)에 있던 정부인 김씨(金氏)의 묘를 수야산 선생 묘 오른쪽에 이장하였다.

정리하면 탁영은 사림의 전통을 이은 당대 최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관작에 나아가서는 항상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성종 20년에서 25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벼슬이 오른다고 표현할 정도의 과도한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탁영은 균형을 잃지 않고, 자신을 잘 통제하였다. 오늘날에도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감히 탁영을 최고의 인재라고 표현하고 싶다.

2. 민중의 소리를 듣다.

탁영은 정통 유학자로서 항상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병휴는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이라는 학술총서의 첫머리에서 사림과의 학문적 성향을 현실대응의식과 자세에 따라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으로 구분하면서, 탁영을 김종직의 문인 중에서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하였다.

탁영이 어떤 방식으로 민중과 소통하였는지는 잘 보여주는 사례로 우선 지리산을 여행하고 쓴 「두류산 유람록」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튿날 아침 골짜기를 빠져나와 북쪽으로 가는데, 험한 곳을 지나니 기름

진 들판이 있어 밭을 갈며 살 만하였다. 또 10리를 가니, 거처하는 백성이 나무를 휘거나 쇠를 달구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꽃이 피면 봄인 줄 알고 잎이 지면 가을이라 느낀다더니, 여기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였다. 따라온 승려가 말하기를, “여기는 땅이 궁벽하여 이정(里正)이 기탄 없이 횡포를 부려 백성이 번잡한 조세와 무거운 역으로 고통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⁶⁾

② 길을 잃고 해마다 간신히 좌방사(坐方寺)에 이르렀다. 거주하는 승려는 3, 4명뿐으로 절 앞의 밤나무가 모두 도끼에 찍혀 넘어져 있었는데, 승려에게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한 승려가 말하기를, “백성들 중에 밭을 일구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못하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높은 산 깊은 골짜기까지 이르러 개간하여 경작하려 하니, 국가의 백성이 많아진 것인데,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교화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⁷⁾

③ 사람들이 전하기를, “두류산에는 감나무, 밤나무, 잣나무가 많아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바람에 떨어져 온 계곡에 가득하여 이곳의 승려들이 열매를 주워 주린 배를 채운다.”라고 하는데, 이는 허망한 말이다. 다른 초목들도 오히려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과실이야 어떠하겠는가. 해마다 관아에서 갓을 독촉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항상 산지에서 사다가 공물로 충당한다고 한다. 매사에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에 이런 부류이다.⁸⁾

④ 절의 북쪽에 고운이 올랐던 팔영루(八詠樓)의 옛터가 있어서 거처하는 승

-
- 6) 金駟孫, 『濯纓集』 卷5, 「頭流紀行錄」, “詰朝。出洞而北。右山左水。道甚懸危。行樹林中十里許。洞口稍開豁。有廬原可以耕而食。又十里有居民。揉木爲業 鍛鐵爲生。余曰。花開爲春。葉落爲秋。有是夫。從僧曰。地僻而里正無忌憚。民苦於賦煩役重。久矣。”
- 7) 金駟孫, 『濯纓集』 卷5, 「頭流紀行錄」, “迷失道。間關抵坐方寺。居僧只三四。寺前栗樹。皆爲斧斤斫倒。問僧胡然。僧曰。民有欲田之者。禁亦不能。余歎曰。太山長谷。耕墾亦及。國家民既庶矣。當思所以富而教之也。”
- 8) 金駟孫, 『濯纓集』 卷5, 「頭流紀行錄」, “人傳頭流多柿栗海松。秋風實落。填滿蹊谷。居僧取而充飢者。妄也。他草木尙不遂其生。況於果實乎。每歲官督海松。民常轉質於產鄉以充貢云。凡事耳聞。不如眼見者類此。”

려 의공(義空)이 자재를 모아 누각을 세우고자 한다고 하였다. 의공과 잠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니, 그 승려가 말하기를, “관청에서 은어를 잡는데 물이 불어나 그물을 칠 수 없어서 조피나무(川椒) 껍질과 잎을 물에 풀어 잡아야 하는데 승려들에게 채취해오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승려가 말하기를, “승려들에게 살생에 쓰이는 물건을 마련하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라고 하여, 나도 오랫동안 이맛살을 찌푸렸다. 오대사의 백성들이 이정의 포학에 시달린다고 들었는데, 쌍계사의 승려들도 물고기 잡는 물건을 바쳐야 하니, 산속도 편하지 않구나.”⁹⁾

뛰어난 지도자라면 보고 듣는 것도 일반인과 다른 법이다. 탁영에게 ‘진정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싶다.’는 포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세밀한 기록과 비평이 가능하였을 것인가? 당시 그의 나이가 25세임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식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①은 언뜻만 보면 가혹한 정치를 비판한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땡이 궁벽하여 이정이 횡포를 부린다.’는 구절에서 문제의 핵심이 제대로 된 법령이 시행되지 못함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다른 경우와는 직접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정상적인 행정력의 회복을 다짐하였으리라.

②에서는 유실수들이 베어진 이유가 화전을 일구는 농민들이 받을 일구기 위함임을 알게 되는데, 곧바로 ‘그만큼 백성들이 많아졌으니 이제 올바른 교화의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라고 한 걸음 나아간 견해를 표명한다. 보통사람들이 사물을 대하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탁영의 식견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③은 ②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점은 ‘듣는 소문만으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안된다.’는 진술에 있다. 적어도 민생을 책임진 관리라

9) 金駟孫, 『濯纓集』 卷5, 「頭流紀行錄」, “寺北有孤雲所登八詠樓遺址。居僧義空。欲鳩財而起樓云。方與義空少坐。忽有剝啄聲。問之。云。官捕銀鯽。水漲不可施罟。當取川椒皮葉毒魚。趣寺僧取給。僧曰。資殺生之物。奈何。余亦擲蹙久之。五臺之民。既不免里正之暴。雙谿僧。又將供毒魚之物。山林亦不安矣。”

면 현장에 나가서 실상을 직접 파악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아울러 ‘관청에서 현실을 알지 못한 채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고, 백성들은 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사다가 채우는 일.’을 말한 것은 올바른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깨어졌음을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④는 절에 있는 승려들조차 무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탁영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유학자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백성의 일부라면 ‘부당한 착취’에 대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승려에게 살생에 쓰이는 물건을 마련하라니 어찌면 좋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왜곡된 현실에 대한 통철한 풍자를 느낄 수 있다.

‘관리는 모름지기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탁영의 신념은 그의 글 곳곳에서 발견된다.

① 교화를 생각하는 선비는 자신을 먼저 낮추어야지, 사람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낮추어 보아서는 아니 된다. 열 집 사는 고을이라도 반드시 충신(忠信)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므로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향음례(鄉飲禮)와 양로연(養老宴)의 시행도 세상을 낮추어 보지 않으려는 때문이다.¹⁰⁾

② 그대는 외딴 고을의 현감을 자칭하였으니 벼슬살이에서 바보짓이다. 그대는 조용히 앉아서 못된 토호와 간사한 향리를 무찌르며 홀아비와 과부를 어루만지는 데에만 마음을 두고 세금 걷는 데에 서투르니 정사에 어리석다.¹¹⁾

③ 못난 관리는 관아가 허물어져도 그대로 방치하고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으니 정사를 간명히 하였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분별이 있고 명석하다고

10) 金駟孫, 『濯纓集』 卷1, 「教化說 送權子汎」, “知教化者。又不能行所以然者。不過卑世而卑人耳。不卑世不卑人。則教化行矣。身率之實在上。而觀感之機在下。十室必有忠信。則非人卑也。行鄉飲養老之禮於令甲。則非世卑也。”

11) 金駟孫, 『濯纓集』 卷3, 「癡軒記」, “子以校理清班。自貶爲僻縣之監。此則癡於仕也。世人捷於應務。臨民則先名。奉上則先譽。子獨頽然坐嘯齋閣。擊豪猾。撫鰥寡爲心。而拙於催科。此則癡於政也。”

생각한 관리들은 멀쩡하게 좋은 관아까지 헐고 급히 말을 몰듯이 새 집을 지어 놓고 “부지런하고 결단력이 있다”고 소리치면서 토목공사가 백성을 고단하게 하였음을 모른다. 그런데 그대는 허물어진 집을 고치고 지붕을 새로 얹었으니 분명 못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분별이 있다고도 못하겠다. 살고 있는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대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며 사는 유수(遊手)를 부리면서 그대 마음이 오히려 고단하였을 것이다. 그대의 노심(勞心)은 바로 그대가 일에 서툴기 때문이다.¹²⁾

탁영은 학자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백성을 위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만큼, 우선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적인 통치자와는 다르다. ①은 연산군 원년(1495년) 권경유(權景裕)가 홍문관 교리라고 하는 중앙의 근시청요직(近侍淸要職)을 사양하고 작은 고을 제천의 현감으로 나갔을 때에 먼저 써 준 「교화설(教化說)」의 일부이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이 수월하지 않으면 의례히 ‘사람들이 본래 비루하여 그렇다’ 혹은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 하며 백성 탓, 세상 탓으로 돌리는 세태에 대한 일침으로 읽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②는 권경유가 제천에서 객관 서편의 허물어진 집에 지붕을 새로 얹고 단장하여 서재로 꾸미고 탁영에게 기문을 청하였을 때 써 준 「치현기(癡軒記)」의 일부이다. 훌륭한 관료는 교화에만 그칠 수는 없다. 나라가 만세토록 건재하자면 백성이 제 명대로 오래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환과고독(鰥寡孤獨 : 즉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한 홀아비와 과부, 고아 등 홀로 사는 사람들)’을 젓먹이처럼 보살피야 한다. 말로는 바보라고 하였지만 ‘중앙의 요직을 바라며 민첩하게 사무를 처리하며 백성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윗사람을 받들며 칭찬을 바라는 관리.’를 현명하다고 여기는 세태에 대한 통렬한 풍자인 것이다.

12) 金駟孫, 『濯纓集』卷3, 「癡軒記」, “世之爲吏者。劣者。以勞民爲辭。視館宇之弊而任其撓壞。自著行簡之說。辦者。峻宇雕牆。無不爲己。不知爲土木之妖。而大馳勤幹之聲。子于堤。修葺弊宇。既不爲劣者。又不能爲辦者。役遊手。不欲勞民而反勞心。此則作事之癡也。”

③은 ②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오늘날 대규모 공사와 장대한 건축으로 ‘우리 고장을 새롭게 바꾸었다’고 하며 또한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다’ 큰소리치는 군상에 대한 경중으로 들리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탁영을 과격한 개혁주의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고자 추구하였음을 알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엉뚱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매사에 침착하고 신중했던 그였지만, 백성들의 소리에 동참하여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기꺼이 무리수에 가까운 행동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탁영이 27세이던 성종 21년(1490) 4월 모친의 병환으로 고향에 와 있던 그에게 이웃 고을 영산(靈山)에 사는 부로들이 찾아왔다. 거의 5년을 재직하면서 헌신적으로 민생을 살피 칭송이 자자한 전 현감 신담(申澹)을 위한 생사당(生祠堂)의 기문을 부탁한 것이다. 탁영도 진주향교 교수로 있으면서 신담의 치적을 익히 알았고, 그래서 성종 19년(1488) 신담이 이임할 때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사당을 짓고 여기에 자신이 기문 지어야 하다니, 참으로 어색하고, 나아가 아무래도 물의를 빚을 것 같았다. 그런데 영산의 부로는 이미 사당을 지어놓고 신담의 화상까지 그려놓고 강권하다시피 하였다. 결국 탁영은 이들의 부탁을 들어 기문을 써 주었다. 본문에서는 “나를 낳은 것은 부모요, 나를 살린 것은 신후(申侯)로세. 신후의 덕이여, 하늘이 만물을 낳음과 비길 만하네.”라고 신담을 칭송하고, ‘신담의 생사당은 비단 한 고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하의 치세에 인재가 있어 풍속이 개화(開化)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기문을 남기는 것도 관찮겠다’는 생각으로 붓을 들었다고 마감하였다.

생사당 기문은 곧바로 물의를 일으켰다. 적지 않은 신료가 탁영을 탄한 것이다. 그러나 성종은 옹호하였다. “김일손은 문학(文學)하는 선비이니 반드시 망령되게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탁영에 대한 신임이었다. 그래도 지나친 과장이 있을지 모르니 진상을 조사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경상감사 김여석(金礪石)이 치계(馳啓)를 올렸다. 역마를 쉬지 않고 급히 올린 보고였다. 물론 탁영의 기문과 다름없는 보고였다. 결국 물의는 진정되었다. 이때 성종이 말하였다. “신담이 끼친 사랑은 헛말이 아닌 듯 하지만, 장래 폐단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 분명 우려 섞인 질책이었다.

권력자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모름지기 인사권을 독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생사당을 둘러싼 논의에서 탁영은 관리들의 치적에 대한 평가권한의 일부를 백성들에게 부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분명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접근이었지만 또한 기득권층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끝으로 탁영이 어떠한 포부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자.

하늘과 땅 사이에 바다는 넓고 육지는 적은데, 우리 청구(靑邱)는 산이 평지보다 많고 국가의 인구는 날로 번성하여 수용할 곳이 없으니, 그대는 자비심이 많으니 어찌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두류산이 뺏어 내린 뿌리를 거슬러 올라 장백산(長白山)에서부터 평평하게 깎아내려 남해를 메워서 만리의 평원을 만들어 백성들이 살 곳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복전(福田)을 삼으면 정위(精衛)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¹³⁾

이는 앞서 인용한 「두류산 유람록」¹⁴⁾의 한 구절이다. 비록 승려와 나누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거침없이 펼쳐지는 언사에서 탁영의

13) 金駟孫, 『濯纓集』 卷5, 「頭流紀行錄」, “余謂僧曰。天壤之間。水多而土小。吾靑邱。山多於地。而國家生齒日繁。無所容。汝善慈悲。盍爲衆生。根尋頭流之所從來。自長白山。平鋤以填南海。作原隰萬里。以奠民居爲福田。不猶愈於精衛乎。”

14) 문범두, 「탁영 김일손의 「속두류록」 고 -기술 방식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탁영은 지리산 유람을 통하여 유학자의 학문하는 노력과 내면을 수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산을 현실과 대극적 차원으로 이해함으로써 유산을 학문의 연찬과 관직 수행의 신고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보았다.”

담대한 포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는 단속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거처하는 승려가 말하기를, “신라의 신하 유순(柳純)이 녹봉을 사양하고 불가에 귀의해 이 절을 창건하였기 때문에 ‘단속(斷俗)’이라 이름 하였고, 임금의 초상을 그렸는데, 그 사실을 기록한 현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말을 비루하게 여겨 초상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할 만큼 항상 백성들의 곁에 서고자 노력하였다.

3. 역사 바로 세우기

탁영에 대하여 최근에 접한 자료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프레시안’에 연재된 <이종범의 사립열전 : 김일손 당신의 죽음은 하늘의 시샘이었다.>이다. 다양한 자료를 알기 쉽게 제시한 이 글은 그동안 탁영 연구에 있어 기본텍스트가 되어 주었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한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을 넘어서는 탁월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김일손은 기억하지 못하면 내일이 없고, 올바른 기록이 없으면 시대의 아픔을 극복할 수 없다는 역사투쟁의 선봉이었다. 특히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전문을 실은 사건은 몰래 부르는 슬픈 기억의 노래를 내일의 희망을 위한 불멸의 서사로 오래도록 살린 쾌거였다.¹⁵⁾

탁영은 일찍이 성종 22년(1491) 3월 28세의 나이로 정언의 벼슬에 오르면서 “관직 정언이란 이름을 가지고 부정언(不正言)을 할 수는 없습니

15) 이종범은 “우리는 김일손의 진실을 향한 기억운동을 신진사립파로 하여금 일시에 세력을 잃게 만든 선부른 도전 혹은 모험주의로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역사투쟁은 십대 중반부터 불의의 시대를 거부한 노(老) 선비를 찾았던 배움의 길, 그리고 김시습과의 중흥사 회합으로 대미를 장식한 순례의 여정이 낳은 자각의 산물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다.”라고 일갈하였거니와 일생동안 춘추대의에 입각한 정명(正名)사상을 견지하였다.

탁영은 주로 예문관·홍문관·사간원·사헌부에서 봉직하였다. 또한 항상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기주관(記注官) 등을 겸임하며 경연에 출입하였다. 직무에 충실한 그의 언사는 준엄하고 냉정하였다. 훈구대신에게도 거침이 없었다. 특히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폭로하며, ‘권귀(權貴)’로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는 과격한 혁명론자는 아니었다. 실용적인 제도의 개혁만으로도 얼마든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종 22년(1491) 3월 지방관의 불법과 탐학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탁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국가에는 예문관이 있어 춘추관을 겸하면서 시사(時事)를 기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야사(野史)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악명이 후세까지 전해지지 않고, 품행이 탁월하고 기위(奇偉)한 사람의 이름도 아울러 묻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방에도 정치와 풍화(風化)에 관계되는 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주관을 두어야 합니다.¹⁶⁾

탁영이 말하는 ‘지방기주관’은 ‘춘추관의 분소(分所)’와 같았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에서도 중앙에서처럼 날마다 사건의 정리와 평론이 이루어진다. 국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역사적 포폄(褒貶)을 위한 문치적 장치였던 기주관제도가 확산되어, 지방에서도 독자적으로 혹은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과 연계하여, 사건이나 인물을 기록하게 된다. 말하자면 ‘야사(野史)’로만 전해지던 많은 이야기들을 제도를 통하여 흡수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관의 불법을 방지하고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싶

16) 『成宗實錄』, 「成宗 22年 3月 21日」, “司經金駟孫啓曰: ‘國家內有藝文館及兼春秋掌記時事, 朝廷之政, 無不備記, 然無野史, 故外吏不法, 雖有如姜參所啓者, 皆不遺臭於後. 卓犖奇偉, 操行特異者, 亦堙沒無傳, 此乃方今闕典, 請依師儒弘文等錄記注可當人, 精擇爲春秋錄, 雖在外居閑, 其所聞見, 有關政治及風化者, 無不備錄, 以廣記注.’”

었던 것이다.¹⁷⁾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탁영의 이 같은 주장이 시행되었다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지 한번쯤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탁영은 국가의 금기사항 일지라도 그것이 춘추대의에 옳다면 서슴없이 들춰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성종 21년(1490) 3월 『춘추좌씨전』을 강의하는 경연에 나갔을 때에는, ‘끊어진 세계(世系)를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임금의 어진 정사’라고 하면서, ‘당초 노산(魯山)은 유약하여 책무를 이기지 못하였을 뿐 종사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고훈(孤魂)이 의탁할 곳 없이 떠도는지라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의 혼령이 어찌 근심이 없고 마음이 편하겠으며 상심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노산군의 후사를 정하여 제사를 지내자는 건의를 하였다. 노산군의 입후치제(立後致祭)는 세조의 손자인 금상의 치세이며, 그 시절의 공신이 여전히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성종 22년(1491) 10월에는 충청도사로 나갔는데 때마침 ‘흰 무지개가 달을 관통하는 이번’이 있었다. 왕이 구언교서를 내리자, 이번에는 현덕 왕후의 원상회복 즉 소릉의 복위를 주장하였다. 이미 세상을 떠난 현덕 왕후를 노산군의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서민으로 강등한 조치는 누가 보아도 잘못이었다. 탁영은 ‘삼 년 동안 아버지의 길을 고치지 않아야 효자라고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의 참뜻을 풀이하며 ‘선왕의 조치를 바꿀 수 없다’는 소릉복위 반대 논리를 논박하였다. 더구나 소릉폐치가 세조대의 일이고 지금은 예종을 지나 금상에 이르기까지 3대가 되고 또한 37년을 넘었으니 ‘이제는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⁸⁾

17) 그러나 지방기주관 기구를 어떻게 구상하였는가, 즉 수령을 책임자로 하고 향교의 훈도나 교수를 기주관 정도로 생각하였는지, 아니면 별도로 중앙에서 파견하려고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야사’ 제도를 지방 정치와 문화의 핵심기구로 상정하였음은 분명하다.

18) 얼마 후 성종은 한때의 국모였던 노산군 부인 송씨에게 적몰재산을 돌려주었고, 송씨는 정미수(鄭眉壽)를 양자로 삼아 제사를 맡겼다. 정미수는 문종의 부마인 정종(鄭宗)이 역모에 걸려 죽은 후에 관비가 된 경혜공주(敬惠公

이처럼 강직한 그의 성격은 사초를 작성하는 데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극돈이 세조비였던 정희왕후 상중임에도 기생과 놀아난 일, 뇌물에 관한 일 등의 비리를 사초에 남긴 것이다. 탁영의 사초에는 이극돈의 비행뿐만 아니라 세조를 모독하고 집권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글이 많았다. 세조가 의경세자의 후궁이었던 권씨, 즉 며느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소릉에서 관을 꺼내 바닷가에 버렸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노산군의 시체를 숲에 버리고 한 달이 지나도 염습하는 자가 없어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 쪼았는데 한 밤에 동자가 나타나 시체를 짚어지고 달아났으니,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왕조실록 연산군 4년의 기록을 요약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상이 수문당(修文堂) 앞문에 남시니,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유자광(柳子光)·신수근(愼守勤)과 주서(注書) 이희순(李希舜)이 입시하였다. 명하여 일손을 좌전(座前)으로 나오게 하고, 전교하기를, “네가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세조조의 일을 기록했다는데, 바른 대로 말하라.”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숨기오리까. 신이 듣자오니 ‘권 귀인(權貴人)은 바로 덕종(德宗)의 후궁(後宮)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 하옵기로, 신은 이 사실을 썼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들었느냐?”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전해들은 일은 사관(史官)이 모두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 역시 쓴 것입니다. 그 들은 곳을 하문하심은 부당한 듯하옵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실록』은 마땅히 직필(直筆)이라야 하는데, 어찌 망령되게 헛된 사실을 쓴단 말이나. 들은 곳을 어서 바른 대로 말하라.”하니, 일손이 아뢰기를, “사관이 들은 곳을 만약 꼭 물으신다면 아마도 『실록』이 폐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¹⁹⁾

主가 낳은 유복자로 노산군의 조카였다. 문종의 외손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이었던 것이다. 세조의 정비 정희왕후(貞熹王后)가 거두었는데, 성종이 어린 시절 임금이 되기 전 궁궐 밖에 살 때에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는 사연이 있었다.

탁영이 금부도사에게 체포되어 국청으로 끌려왔을 때 최초의 심문은 이와 같았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권귀인과 윤소훈은 성종의 생부로 덕종(德宗)으로 추존된 의경세자(懿敬世子)의 후실로서 세조의 며느리들이었다. 이는 궁정의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으며, 통치권의 도덕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에 연산군은 조금도 굽히지 않는 김일손을 ‘왕실을 능멸하였다’는 빌미로 죽이고 말겠다는 살기를 품게 되었다.²⁰⁾

출처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탁영도 무심결에 허반(許磐)에게 들었음을 실토하였다. 세조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권귀인의 조카이며 양자이기도 하였던 허반도 바로 잡혀왔다.²¹⁾ 그러나 모진 고문에도 탁영에게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탁영의 다른 사초들도 속속 들춰졌다. 즉 ‘박팽년·하위지의 재주를 애석히 여긴 세조가 이들을 살리고자 신숙주를 보내어 효유(曉諭)하였으나 모두 듣지 않고 죽었다’거나, ‘탄선사(坦禪師)가 시구(屍柩)를 수습한 정분(鄭本)은 김종서와는 죽음은 같아도 의리는 같지 않다고 하며 죽었다’는 내용 등이었다. 결정적으로 성종 21년(1490) 3월 경연에서 노산군의 입후치제를 주장한 직후에 작성한 사초에 있는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었다. 유자광이 ‘김종직이 과거하기 전에 꿈속에서 보고 느낀 바대로 충분(忠奮)에 부쳤다’는 논평을 토대로 세조의 정변과 찬탈을 풍자한 것

19) 『燕山君日記』, 「燕山君 4年 7月 12日」.

20) 무오사화 당시 연산군은 오촌 당숙인 제안대군의 애첩이었던 장녹수에게 빠져 있었다. 그는 사림파의 간언과 권학에 염증을 느끼고 학자와 문인들을 경원하였으며, 반대로 자신의 방종과 사치를 추종하는 자를 마음에 들어 했다. 따라서 세조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한 말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21) 허반은 언젠가 좌의정 홍응(洪應)에게 ‘세자는 훗날 다음 대를 이을 임금이 되면 만백성이 우러러 의지할 분인데, 지금 환관과 함께 거처하고 서연(書筵)에 나아가는 때가 적고 놀며 희롱하는 때가 많다’는 걱정을 털어놓았다가 연산군에게 들킨 적이 있었다. 이미 죽을 목숨이었던 것이다.

임을 조목조목 밝혔기 때문이다.²²⁾ 이는 『세조실록』에 실린 ‘노산군이 영월에 있을 때 금성대군과 송현수(宋玟壽)·정종(鄭宗) 등이 형벌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매고 세상을 마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정면부정이었다.

탁영이 잡혀온 3일 만에 조정은 엄청난 충격과에 휩싸였다. 함께 사초를 작성했던 권오복과 권경유도 즉각 잡혀왔다. 권오복은 ‘「조의제문」은 간곡하고 측은하고 침착하고 비통하여 남이 말 못하던 데를 말하였다’고 하였고, 권경유는 ‘「조의제문」은 충의가 격렬하여 보는 자가 모두 눈물을 흘렸는데 김종직에게 있어 문장은 다만 여사(餘事)일 뿐이다’고 적었다. 모두가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역사투쟁의 한 장면들이었다.

결국 탁영은 함양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구금된 것으로부터 겨우 17일 만에, 오늘날 ‘최종확정 판결’과 같은 형이 결정된 바로 다음날 능지처사에 처해짐으로써 사법적 살인을 당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일찍부터 왕에게는 기피인물로, 훈구파 집권세력으로부터는 그들이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지목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중종 2년(1507) 6월 2일의 기록에 무오사화 이후 사관이 기록을 소홀히 하게 된 것에 대한 사신의 논평이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사신은 논한다. 무오사화(戊午史禍)²³⁾가 일어남으로부터 사관의 기록하는 것이 왕의 말 출납만을 쓸 뿐이었는데, 반정 뒤로는 사람들이 불붙은 기름 속에서 살아나자 놀고 즐기는 데만 빠져 직무를 돌보지 않고 왕의 말마저도 기록하지 않다가, 여러 해를 지나고 나서야 사고(史稿)를 정리하니, 조정의 논의나 상벌 등의 일에 빠진 것이 많았다.²⁴⁾

22) 조의제문은 당시 지식인들도 읽기 어려울 정도로 은유적 표현이 가득한 글이었는데, 유자광이 친절히 이 글을 해석해서 연산군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조의제문이 세조의 쿠데타에 대해 비난하는 글임이 밝혀진다. 설령 김종직이 정확하게 그런 의도로 쓰지 않은 글일지라도, 제자인 김일손이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

23) 사초가 원인이 되었다하여 ‘史(사)자를 넣어 한자로 사화(史禍)라고도 표기한다.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는 사회를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인 변동이 급변하는 가운데 사회질서의 문제를 놓고 일어난 정치적인 마찰로 규정한다. 신진 사류와 훈구파의 대립은 사상적·정치적 이념의 차이나 감정적인 반목이 전부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모순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세종 대 이후 사전의 증가에 따른 토지 사유화의 진행은 과전법의 모순을 드러냈으며, 관인 지배층의 토지 겸병은 일반서민의 경제상황을 압박하고, 나아가 신진 사류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사림파와 옛 질서를 고수하려는 훈구파 사이의 충돌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러므로 무오사화는 부패 타락한 훈구파 집권세력이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무모하게 급조한 정치적 사건이었던 것이다.²⁴⁾ 이종범은 자신의 글에서 탁영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렇듯 김일손은 열다섯 살부터 이십 대 후반까지 세조의 치세를 은둔으로 저항한 노(老)선비를 차례로 탐방하였다. 그것은 차라리 순례였으며, 우리나라 기억운동, 당대사 바로쓰기 역사운동의 원형을 잉태한 풍경이었다. 따라서 김일손의 역사투쟁은 결코 설부른 모험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패자와의 진실을 향한, 미래를 전망하는 약속의 실천이었기에 추악한 승리에 매진하는 모습이 비밀비재한 오늘날에 더욱 소중하게 새겨야 할 교훈이다.

탁영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을 비루하게 여겼다. 이 같은 성향은 그가 당시 글을 배운 선비라면 누구나 꿈꾸고 동경할 수밖에 없었던 명나라에 다녀온 후에 그 소감을 쓴 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수레와 말이 넘쳐나 오르고 내리며, 변화한 문물 백 년의 성대함을 자랑하는구나.”라고 북경의 변화함을 묘사하였지만, 탁영은 오히려 인재

24) 『中宗實錄』, 「中宗 2年 6月 2日」, “史臣曰: ‘自戊午史禍起, 史官所記, 不過王言出納, 而反正後, 人自膏火中出, 惟事游宴, 不履[賢]職務, 并與王言而不記, 至過數年而後, 始修史稿, 如朝廷論議及賞罰等事, 多有脫漏.’”

25) 한국인물사연구원, 『핏빛 조선 4대사화 첫 번째 무오사화』, 도서출판 타오름, 2010.

를 만날 수가 없었던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來縫掖之貿貿兮	도포 입은 선비들 몰려들어
相怪問兮雜薰蕕	군자 소인 뒤섞여 괴상한 것만 물어보며
贊短章而求友	짧은 글 주면서 사귀자고 청하니
愧明月之暗投	밝은 달을 어둠에 던진 듯 부끄럽기만 하였네
訪屠狗於市上	시대 만나지 못한 현사를 저자에서 찾았으나
悲歌斷兮酬與酬	노래 끊겨 슬프더라 누구와 수작할까
俗與化而推移	풍속과 교화가 시대에 따라 변하더니
人向下而益偷	사람도 천해져서 재물만 더 좋아하더라

도포를 입었으나 군자인지 소인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이 조선에서 온 자신에게 괴상한 잡담만을 늘어났다는 것이다. 무척 서운하였다. “개미 같은 내 인생 한스럽구나.” 더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재물만 좋아하는 것 같았다. 문명과 도덕의 괴리였다.

필자가 그동안 공부한 바를 통해서 보면, 당대의 뛰어난 지식인은 필연적으로 시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아마도 탁영 또한 그러하였으리라 짐작해 본다. 그는 지리산을 유람하고 쓴 글의 말미에서 고운 최치원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가령 내가 고운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의 지팡이와 신발을 들고 쫓아 다니며 고운이 외로이 떠돌며 불법(佛法)을 배우는 자들과 어울리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고운이 오늘날 태어났더라도 반드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 나라를 빛낼 문필을 잡고서 태평성대를 찬란하게 표현했을 것이며, 나도 그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끼 낀 비석을 어루만지니 감개무량하였다.²⁶⁾

탁영은 미리 가능성을 점치고 일희일비하는 인물이 아니라 묵묵히 자

26) 金駟孫, 『濯纓集』 卷5, 「頭流紀行錄」, “使某生於孤雲之時。當執杖履而從。不使孤雲踽踽與學佛者爲徒。使孤雲生於今日。亦必居可爲之地。摘華國之文。賁飾太平。某亦得以奉筆硯於門下矣。摩挲苔蘚。多少感慨。”

신의 길을 걸어간 인물이었다. 그러하기에 무도한 연산군 앞에서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연산군 1년 왕에게 올린 시정 개혁에 대한 ‘이병 26사’는 성종 대의 이심원과 남효온의 개혁안을 이어 받고 그 범위는 시정 전반에 확대시킨 시무책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정 전반에 걸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평소 경사를 널리 섭렵하였고, 2회에 걸친 사가독서와 과명 사신의 경험을 통해 식견을 넓혔으며, 10여년에 걸친 내외 관직 및 경향과 지방의 왕래, 그리고 지리산을 등반하면서 국내외 정세와 민간의 이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⁷⁾

사족으로 요동질정관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외교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에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군사전략가로서의 역할²⁸⁾에 대한 주장이 나온 배경과 근거를 규명하지 못한 점, 그리고, 왕조실록에 보면 첩자 2인²⁹⁾이 나중에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천착이 없었던 점 등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Ⅲ. 천안의 도동서원

도동서원(道東書院)은 조선 인조(仁祖) 때 충청도 목천(木川)에 건립된 서원이다. 숙종 2년(1676)에 사액(賜額)되었고, 주자(朱子)와 함께 탁영 김일손(金駟孫), 한강 정구(鄭述), 후천 황종해(黃宗海)를 배향하였다.³⁰⁾ 흥

27) 이수건, 「탁영의 정치·사회사상과 개혁안」,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8.

28) 탁영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의 양방향으로 방어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장성과 관문의 설치, 그리고 검찰관과 변방책임자의 엄중한 직무수행 등이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제도의 개선과 적임자를 엄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9) 「탁영선생연보」에는 金부인의 유명에 따라 대장이 입후한 것만이 기록되어 있다.

30) 『왕조실록』에서는 사액한 기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고종 8년(1871) 훼철되었으며,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였다. 은석산의 남동쪽 계곡에는 도동서원(道東書院)이 있었던 서원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개목’으로 불렸는데 서원이 들어선 후 서원리가 됐다가 병천리에 편입되어 현재는 마을 이름만 남아 있다고 한다.

도동서원의 건립 계기를 마련한 것은 한강(寒岡) 정구(鄭逵 : 1543-1620)이다. 그가 만년에 목천의 번자울에서 우거하고 있었을 때, 고을의 선비들과 함께 은석산 아래 수석(水石)이 맑고 아름다운 이곳에 강사(講舍)를 세우려고 터를 닦다가 ‘죽림(竹林)’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돌을 흙 속에서 얻었다. 한강은 주자(朱子)가 머물렀던 ‘정사(精舍)’와 같은 석각(石刻)이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제갈량의 ‘와룡천곡’의 고사를 모방하여 이곳을 ‘죽림정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죽림정사’를 세울 때, 처음부터 주자를 배향하는 사우를 건립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서원등록』에는 한강이 죽림사우를 세워 주자를 제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동국원유록』, 『조두록』, 『문헌비고』 등에는 도동서원이 인조 기축년(1649)에 세워졌다고 하였으며, 천안의 읍지인 『대록지』에는 먼저 죽림정사를 세우고, 후에 서원을 세워 주자를 제향하고 탁영 김일손, 한강 정구를 배향하였으며, 인조 기축년에 향선생 후천 황중해를 추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³¹⁾

『탁영선생연보』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① 1492년 1월 기축(18일) 목천에 있는 별서(別墅 : 일종의 별장)에 가다. 별서는 목천현(현재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일대) 동쪽 작성산(鵲城山) 밑 번곡, 즉 선생 계배부인 본택 인근에 있었다. 선생은 일찍이 그 산과 계곡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계곡 위쪽에 작은 별서를 지어 노비 두 사람을 두고 왕래하면서 휴식소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번에 또 정사(精舍)를 지어 편액에 ‘죽림(竹林)’이라 새기고 그 오른쪽에 주자를 우러러본다는 뜻으로 ‘우모(寓慕)’라 다시 새겼다.³²⁾

31) 천안문화원, 『천안의 향교와 서원·사우』, 향토문화자료 18, 2001.

② 1664년 3월 목천 죽림사(竹林祠)에 배향(配享)하다. 사당은 현동(縣東) 일원(一遠) 동쪽의 변곡(磻谷)에 있다. 처음에 한강(寒岡)선생이 변곡에서 ‘죽림(竹林)’ 두 자가 새겨진 석각(石刻)을 발견하였는데, 주자의 정사 이름과 같음을 알고 거기에 사당을 세워 주(朱)선생을 향사(享祀)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학자들이 선생께서 『소학집설(小學集說)』 간행과 강목교정(綱目校正) 등 사문(斯文 : 儒敎文化)에 끼친 공이 크고 또한 그곳이 관직을 사직하였을 때 휴식하던 곳임을 알고 마침내 같이 받들어 향사(享祀)하게 된 것이다. 삼가 살피건대 토착 인사들이 전하는 바로는 사당을 세운 곳은 선생이 거처하던 죽림정사(竹林精舍)의 옛터이고 석각의 두 글자 역시 선생이 쓴 것이라 한다.

○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강(寒岡)이 사당을 세운 것은 다만 창주정사(滄洲精舍)의 옛 이름과 우연히 합치한 것만 알고 선생이 주자(朱子)를 의탁하고 추앙하여 생긴 유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또한 배향하게 되었을 때도 다만 사문(斯文)에 공이 있는 것만 알았지 선생이 주자(朱子)를 으뜸 스승으로 추앙한 본의는 널리 밝혀져 전해지지 못했다. 문헌을 없애고 징표가 없는 마당에 선생의 사실(事實)이 어찌 민몰(泯沒)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겠는가? 그러나 사당의 건립이 이제 이루어졌고 배향 또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필연을 있게 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선생의 도가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타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³³⁾

①은 탁영이 29세 때의 일로 연보를 작성한 조카 대유의 기록이며, ②는 후대에 연보에 덧붙여진 사실이지만, 두 기록에 일관성이 있음을 알

32) 『濯纓先生年譜』, “春正月己丑往木川別墅 墅在縣東鵲城山下磻谷即先生繼配夫人本宅之隣也先生嘗愛其溪山明媚營小墅于溪上置奴婢二口以爲往來休息之所至是又作精舍扁其額曰竹林復刻于石以寓慕仰朱子之意”

33) 『濯纓先生年譜』, “春三月配享木川竹林祠 祠在縣東一遠東之磻谷初寒岡鄭文穆公述得石刻竹林二字於磻谷感朱夫子精舍之名因其地建祠享朱夫子至是學者以先生刊行小學集說校正綱目大有功於斯文亦杖屨遊息之地也遂奉以綴享○謹按土人士相傳以爲祠即先生所居竹林精舍之遺址而石刻二字亦先生之筆云竊意寒岡之建祠但知其偶合於滄洲精舍之舊名而不知爲先生依仰朱子之遺蹟及其配享也亦但以有功斯文而不能闡揚先生宗師朱子之本意豈非文獻無徵先生事實泯沒不傳而致然歟然其建祠也必於是配享也必於是若有使之然者尤可見先生之道未嘗不顯於冥冥之中矣”

수 있다. 즉 그 명칭이 ‘죽림정사’ 혹은 ‘죽림사’나 ‘우모정사’로 조금씩 다르지만, 맨 처음에 그 기초를 마련한 것은 탁영 김일손이었다는 사실이다.

탁영은 26세인 성종 20년(1489) 7월에 호서(湖西) 목천(木川)에서 예안 김씨를 재취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부인(夫人)은 신라 경순왕의 후예인 중랑장(中郎將) 김로(金輅)의 후손이며 영릉참봉(英陵參奉) 김미손(金尾孫)의 따님이었는데, 그 집이 현동(縣東) 일원면 번곡리에 있었다. 예컨대 이때부터 탁영이 목천지역과 인연을 맺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³⁴⁾ 그런데 지금 천안의 동면에 속해있는 김씨부인의 옛집 인근의 지명에서 특이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목천군 이원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보평리, 구도리, 구암리를 병합하여 구도리라 하고 동면에 편입되었다. (※ 옛 지명 중에서 탁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구도리 : 구두실이라고도 하며, 연산군 때 문장 절의로 유명한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이 그의 처가인 이곳에 살면서 학문을 익혔고, 묘가 이곳에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다. 김일손이 장인인 김미손(金尾孫)의 자식들을 학문에 힘쓰라고 구두실이라 하였다고 한다.

- 탁영묘 : 김일손의 묘가 구두실 부근 동쪽 산 20번지에 있었다고 하는데 탁영선생지묘라는 비를 목천 현감으로 있던 박순인이 세웠다고 한다. 왜정 초 사방 공사할 때 계곡 축대 쌓을때 없어졌다 하며 묘를 아는 사람은 현재 없다.

- 금정 : 구두실에 있는 우물. 연산군 때 학자 탁영 김일손이 쓰던 우물이라 하며, 산사태로 메워지기는 했으나 지금도 남아 있다.

- 현고수 : 구두실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해방 후 없어졌으며, 그 은행나무가 연산군 때 학자 탁영 김일손이 과거에 합격하여 이 나무에 북을 매달고 잔치를 하였다고 한다.³⁵⁾

34) 『濯纓先生年譜』, “癸亥再聘夫人禮安金氏于湖西之木川 夫人卽新羅敬順王裔孫中郎將輅之後 英陵參奉尾孫之女家在縣東一遠面礪谷里”

35) 이상은 현재 천안시 동면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탁영이 처가가 있는 이곳에서 학문을 익혔다거나, 우물이 남아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합격하여 복을 치고 잔치를 하였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탁영은 이미 23세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26세로 김씨와 결혼할 당시에는 이미 경연에 입시하는 정도의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류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사위의 편지를 받은 장인은 눈썹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자신이 무관(武官)출신이나 글은 좀 읽을 줄 알았는데, 과거공부를 위해 절에 들어간 사위가 보낸 편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편지에는 ‘문왕(文王)이 죽고 무왕(武王)이 나왔으니 주공주공(周公周公) 소공소공(召公召公)에 태공태공(太公太公)이라.’고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다.

이때 마침 손님으로 온 선비가 “사위의 재치가 대단하군요. 영명한 아들하나 들이셨소이다.” “저 그럼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문왕의 이름은 ‘창(昌)’이니 ‘구두 밀창’을 뜻하고 무왕의 이름은 ‘발(發)’이니 ‘걸어다닌 발(足)’을 뜻합니다. 즉 구두밀창이 떨어져서 발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게다가 주공의 이름은 ‘단(旦)’이니 아침을 뜻하는 것이고, 소공의 이름은 ‘석(奭)’이니 같은 발음인 ‘석(夕)’으로 대체되어 저녁을 가리키고, 태공의 이름은 ‘망(望)’이니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붙여서 이해하면 ‘아침저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부터 장인은 사위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³⁶⁾

물론 ‘고전해학’에 속하는 것으로 가벼운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당대의 촉망받는 인재를 사위로 맞이한 상황에서 새삼스레 문장실력에 감탄하였다든지, 혹은 첫머리에서 과거공부를 위해 절에 들어간 사위로 설정한 점 등은 모순이 느껴지는 부분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논리적 비약을 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탁영과 부인이 된 김씨 집안과의 인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

36) 「어우야담(於于野談)」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터 이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우선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들을 추정해보면, 고향과 서울을 자주 왕래하였던 탁영으로서는 중도에 쉬어가는 곳으로 이곳에 자주 머물렀으며, 이 과정에서 은퇴한 후에 사람 만나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김미손의 눈에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김씨 부인은 성종 1년(1470)년에 태어났으니, 결혼할 당시의 나이가 20세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조혼(早婚)의 풍속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김미손은 일찍이 탁영의 후원자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부인을 잃은 탁영에게 자신의 딸을 소개하였고, 결국에는 혼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가정이 완성된다.

한강이 은석산 계곡에 강사를 짓기 위해 터를 닦았다는 이야기 역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시작하였다기보다는, 이미 탁영이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미 100여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목천은 탁영이 죽은 후에 잠시나마 무덤이 있었던 곳이며, 부인 김씨의 무덤과 이를 기록한 비문도 있었다.

중종 3년(1508) 8월 수야산 술좌의 언덕에 반장(返葬)하다. 장지는 선영(先兆)의 동편 언덕이다. 선생의 구묘(舊墓) 비석에는 ‘濯纓先生金公之墓’라고 새겨져 있는데, 지금 부인의 묘소를 같이 옮길 수 없으므로 인하여 그 비석을 부인 묘앞에다 세워두었다.³⁷⁾

고종 9년(1872년) 10월 정부인 김씨(金氏) 묘를 반장(返葬)하여 개수하다. 정부인 묘는 목천 작성산(鵲城山)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수야산 선생 묘 오른쪽에 이장하였는데 지형에 따른 것이었다.³⁸⁾

37) 『濯纓先生年譜』, “三年戊辰 秋八月丙子返葬于水也山戌坐之原 在先兆東岡○先生舊墓碣書曰濯纓先生金公之墓至是夫人墓所未得同遷因其碣豎于夫人墓前”

38) 『濯纓先生年譜』, “二百二十九年{我 當寧九年} 壬申 冬十月改修墓貞夫人金氏返附 貞夫人墓在於木川鵲城山至是返附于先生墓右從地形也” ⇒ 追錄 : <翌年豎碣>

한편 함께 모셔진 후천 황중해(1579-1624)와 관련해서는 ‘광해군 2년(1610)에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의 행장(行狀)을 지었다.’라는 것과, ‘목천에 서원이 없는 것을 탄식하여 후배들의 강학처를 제공하고자 도동서원을 세웠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외형상으로는 한강이 주도했지만, 실제로는 목천(木川)에 기반을 두었던 후천이 실무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 글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선조 41년(1608) 봄에 자계서원(紫溪書院)을 중건(重建)하다. 임진왜란 때 병화로 훼손된 후 지금에 이르러 사림(士林)에서 의논을 모아 중건하게 되었다. 광해군 7년(1615) 을묘(광해군 7년)에 절효공과 삼죽당 두 선생도 함께 향사하게 되었다. 「상향축문(常享祝文)」은 한강(寒岡) 정구(鄭述 : 1543-1620) 선생이 찬하였다.³⁹⁾

결론적으로 탁영에 대해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한강이 제자인 후천과 함께 도동서원의 건립을 추진하였고, 뜻을 같이하는 유림의 힘을 모아 완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건립시기를 훨씬 후대인 인조 기축년(1649)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완공까지의 과정은 녹녹치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한강과 후천은 시작만 해 놓고 정작 완결을 본 것은 후천의 제자들 대에 이르러서였을 수도 있다.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도동서원은 1676년 드디어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숙종 2년(1676) 봄에 충청도 유생들이 죽림사(竹林祠)에 사액(賜額)토록 상소하여 윤희 받다. 본 현 유생들이 향현인 한강(寒岡) 정구(鄭述 : 1543-1620)공과

39) 『濯纓先生年譜』, “三十六年戊申 春重建紫溪書院 壬辰倭奴之變祠宇燬于兵燹 至是士林合謀重建並享節孝公三足堂兩先生” ⇒ 追錄 : “상향축문(常享祝文)은 한강(寒岡) 정구(鄭述, 1543~1620) 선생이 찬하였다.”

후천(朽淺) 황종해(黃宗海 : 1579-1642)공을 추가로 배향하고 곧 청액의 소를 올렸다. 가을에 ‘도동서원(道東書院)’이란 현판이 하사되고 승지가 파견되어 향사(享祀)하다.⁴⁰⁾

천안 지역의 향토읍지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사원】 도동서원(道東書院) 인조(仁祖) 기축년에 세웠고 숙종 병진년에 사액하였다. 주자(朱子) 문묘에 보인다. 정구(鄭逵) 충주(忠州)에 보인다. 김일손(金駟孫) 자는 계운(季雲), 호는 탁영(濯纓), 본관은 김해(金海), 연산군 무오(戊午)년에 화를 입었다. 벼슬은 헌납(獻納),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황종해(黃宗海) 자는 대진(大進), 호는 후천(朽淺), 본관은 회덕(懷德), 벼슬은 장원서 별제(掌苑署別提)이다.

함께 배향된 한강과 후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

한강(寒岡) 정구(鄭逵 : 1543-1620)의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岡), 본관은 청주(淸州)로 대장군 의(毅)의 후손이며 복재 총(復齋 摠)의 6대손이요, 사중(思中)의 셋째 아들이다. 10세에 이미 학문에 뜻을 두어 독서에 열중하였고, 13세에 성주향교에 교수로 와 있던 덕계 오건(德溪 吳建)에게 주역(周易)을 배우면서 건곤(乾坤) 2괘(掛)를 읽고는 나머지를 모두 미루어 통달했다고 하며, 22세에 과거보러 상경한 적이 있었으나 느낀 바 있어 과장(科場)에 들지 않고 귀향하여 그 길로 과거를 포기하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선조 6년(1573), 31세 때에 조정에서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으로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7년 동안 건원능참봉(建元陵參奉), 의흥(義興), 삼가(三嘉), 지례(知禮) 등의 현감 발령이 있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고 창평산(蒼坪山) 선영 곁에 집을 지어 한강정사(寒岡精舍)라 이름하고 거기에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 선조 13년(1580), 38세에 다시 창녕현감(昌寧縣監)으로 발

40) 숙종 2년 사액되었다는 것은 『탁영연보』의 “三十三年(我 肅宗大王二年)丙辰 春忠淸道儒生疏請竹林祠 賜額蒙 允 本縣章甫以鄉賢鄭寒岡逵黃朽淺宗海 追配仍陳疏請額 秋 宣額道東書院 遣承旨賜祭”에 근거한 것이다.

령되어 비로소 부임, 1년 반 동안 지방행정에 종사하여 선정으로 생사당(生祠堂)이 세워졌다. 그러나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발령됨을 기회로 벼슬을 버리고 매화 100그루를 심어 백매원(百梅園)이라 불렀다. 그 뒤 외직으로 동북(同福), 함안(咸安), 통천(通川) 등 고을살이를 거쳐 임진왜란 중에 강릉부사(江陵府使), 강원감사(江原監司), 성천부사(成川府使), 그리고 난(亂) 후에 충주목사(忠州牧使), 안동부사(安東府使) 등을 역임하였고, 내직으로 교정청(校正廳) 교정랑(校正郎), 동부승지(同副承旨), 좌승지(左承旨), 형조참판(刑曹參判) 등을 거쳐 광해군 초에 대사헌(大司憲)으로 특진(特進)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나왔다.

선생의 벼슬살이 경력을 보면 내직은 항상 사퇴를 하였으나 외직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임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중에 외직을 통하여 국사(國事)와 민정에 진력하는 한편, 각 지방의 전몰장병을 매장, 애도하고 나아가 외적을 물리친 최춘명(崔春命), 원충갑(元沖甲) 등 민족의 영웅들을 위해 사당(祠堂)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여 당시 군민(軍民)의 사기를 고무시켜 주었다. 그러나, 선생의 만년은 광해군이 형제(임해군과 영창대군)를 죽이고 모후(母后)를 폐하는 등 소동을 당하여 여러 번 상소를 올렸으나 이루지 못했고 북인정권(北人政權)의 횡포(橫暴) 밑에 여러 차례 중상과 모함을 입기도 하여 그의 은퇴되었던 무흘(武屹 : 금릉군 증산면)에서 다시 노곡(盧谷)으로, 또 다시 사양정사(泗陽精舍)로 이주하여 78세를 일기를 선생의 숭고한 일생을 마쳤다.

선생은 전국에 걸쳐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특히 당시의 영남 인사들의 대부분이 그의 문도들이었거니와 한편 근기(近畿) 출신의 미수 허 목이 따로 선생의 학문 정수(精髓)를 물려받아 훗날, 근기학통(近畿學統)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강을 연원(淵源)으로 한 근기학통의 계보(系譜)는 곧 조선후기(朝鮮後期)의 실학사상(實學思想)의 주류(主流)를 이루는 경세치용파(經世致用派)로 이어졌다.

선생의 학문 저술은 그 범위가 너무도 넓어 성리학(性理學), 예학(禮學), 역사전기(歷史傳記), 지지(地志), 의학(醫學), 문학(文學) 등 각 부문에 걸쳐 있다. 그러나 유감된 일은 불행하게도 1614년(광해군 6년) 선생이 노곡(盧谷)으로 피신하여 살 때에 큰 화재를 입어 모든 책들이 하루 저녁에 재가 되었다. 이 때 선생은 “하늘은 나를 장례하는도다.”하고 통탄했지만 이미 72세의 노경에 이른 선생의 근력으로 그 전부를 다시 편찬할 수 없었고 오직 몇몇 종류만 다시 집필하여 복원(復元)된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해군 12년(1620) 1월, 선생이 돌아가자 문목(文穆)의 시호(諡號)를 내리고 인조반정 후에 이조판서, 효종 때 영의정으로 추증(追贈)되었다.

후천(朽淺) 황중해(黃宗海 : 1579~1642)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회덕(懷德). 자는 대진(大進). 조부는 황윤림(黃潤琳)이고, 부친은 황덕휴(黃德休)이다. 모친은 창녕성씨(昌寧成氏) 참봉(參奉) 성우(成羽)의 딸이고, 아내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이홍벽(李弘璧)의 딸이다. 한강(寒岡) 정구(鄭述)에게 수업을 받았다.

광해군 2년(1610)에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의 행장(行狀)을 지었다. 광해군 3년(1611)에 정인홍(鄭仁弘)이 이황(李滉) 등을 모함하자 양호(兩湖)의 제생(諸生)들과 함께 상소하여 정인홍을 논척하기도 하였다. 1613년(광해군 5)에 광해군이 대비를 서궁(西宮)에 유폐하자 과거 공부를 폐하고 세상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후 장유(張維)가 천거하여 후릉참봉(厚陵參奉),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제수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아니했다. 인조 10년(1632)에 최명길(崔鳴吉)과 목서흠(睦敘欽)의 천거로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나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인조 18년(1640)에 6품에 서용되어 장원별제(掌苑別提)가 되었으나 역시 나가지 아니하였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지만 도학(道學)에 깊은 관심을 가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만나 예(禮)를 논하고 문기도 하였다. 「퇴도선생산거시발(退陶先生山居詩跋)」, 「심성정리기설(心性情理氣說)」 등의 문장을 지었다. 또한 남전향약(藍田鄉約)을 손익(損益)하여 「촌규범례(村規凡例)」 46조(條)를 만들기도 하였다. 인조 20년(1642) 12월 24일에 졸하니, 문인(門人) 안여룡(安汝龍), 김광훈(金光勳) 등이 장례를 맡아 삼생동(三生洞)에 장사를 지냈고, 효종 1년(1650)에 죽림서원(竹林書院)에 배향되었다.

문집인 『후천집(朽淺集)』은 숙종 39년(1713)에 증손 황응하(黃應河)와 종증손(從曾孫) 황찬(黃燦)이 고성현(固城縣)에서 간행했다. 문집은 시, 편지, 문답(問答), 소차, 잡저 등이 실려 있으며, 원집(原集) 8권, 부록(附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안 지역에 이처럼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있음에도 현재에는 이를 기념하는 안내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후학들의 수치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한 바에 비추어, 이제라도 더 잊히기 전에 복원작업을 시작해야한다. 힘 있는 분들의 관심과 발전적 논의를 촉구한다. 아울러 복원단계부터 활용방안까지를 모색하여 이

왕이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삼가 기원한다.

IV. 結語

탁영 김일손(金駟孫 : 1464-1498)이 살았던 15세기 후반기의 조선전기 정치사회는 낡고 병든 보수적 정치세력인 훈구파(勳舊派)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덕과 사회질서의 확립을 요구하는 변혁의 시기였다.

탁영은 유교적 도학정치의 실현이라는 강한 명분의식이 체질화된 가풍 및 사림파의 전형적 특징을 지닌 부조의 가학과 포은·야은의 학통을 이은 김종직의 학맥을 계승하였으며, 강목과 춘추의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역사의식의 소유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인재는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만드는 법이다.

탁영은 성종 17년(1486) 23세때 甲科 第二人으로 급제하여 承文院權知副正字로 관직을 시작하여, 戊午史禍에 連累되어 斬刑을 당하기까지 10여 년간 弘文館, 司憲付, 司諫院 등 言官職과 승정원과 같은 侍從職을 두루 거쳤는데, 무엇보다도 언관시종직에 종사한 기간이 길어서 정치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들을 論駁할 기회를 많이 가졌었다.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도 많았으리라. 그런데 그는 권세에 영합하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왜곡되고 부패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일념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였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문장가로서 중국의 사신으로부터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거두인 한유(韓愈)의 문장과 방불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으며, 음률에도 조예가 언제나 거문고를 즐겨 연주하였으니, 그가 아끼던 거문고는 지금도 남아있다.⁴¹⁾ 한마디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그러

41) ‘탁영금’이라고 부르는 이 거문고는 길이 160센티, 너비 19센티로 중앙부분

나 무엇보다도 탁영은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인물이었다. 아마도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 수시로 서울과 고향을 왕래하면서 만나고 부딪치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형성하였으리라. 그리고 춘추대의에 입각한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하여 정의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꿈꾸었다.

현실 정치사회계의 도덕적 타락을 바로 잡고 사람세계의 도덕·正義가 생동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탁영의 노력은 史草化한 ‘弔義帝文’을 빌미로 하여 ‘史禍’로 비화되었다.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역사의 거센 파도에 휘말려 무오사화로 인해 탁영은 35세의 아까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스러지게 되었다. 성종의 정치적 배려로 전면에 나섰던 사람의 세력도 아울러 싸늘한 정치적 보복을 피할 수 없었으니, 이는 현재에도 계속되는 정치세계의 비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⁴²⁾

도동서원은 조선 인조(仁祖) 때 충청도 목천(木川)에 건립된 서원이다. 숙종 2년(1676)에 사액되고, 주자(朱子)·정구(鄭述)·김일손(金駟孫)·황종해(黃宗海) 등을 배향하였다. 그러나 그 유래를 찾아가면 탁영 김일손이 글을 읽었던 ‘죽림정사’에 기원을 두고 있다. 후대에 목천에 머물렀던 한강 정구가 강학을 위한 장소를 찾던 중에 땅에서 옛 흔적을 발견하고 주자를 배향할 사당을 세울 것을 추진했으며, 후천 황종해를 중심으로

에 탁영금(濯纓琴)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학 그림이 거문고 아래쪽에 그려져 있다. 옛 선비들의 애완품으로 사용된 악기로서는, 유일하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 탁영은 「금가명(琴架銘)」에 “거문고는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라 시령을 만들어 높이는 것이니 소리가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 42) 우암 송시열은 「탁영연보」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극돈의 후손들은 번성하였으나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손들 중에는 학식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더욱이 하늘의 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극돈의 후손인 이침은 간악한 원흥의 죄를 지어죽었고 그 집과 자손이 망하였으며, 선생은 꽃다운신 그 이름이 백세로 전하여 선비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니, 하늘의 도리는 과연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으로 착한 덕을 권장하는 할 수 있다.”

한 이 지역 유림들이 서원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먼저 탁영을 모시고, 이어 한강과 후천을 차례로 배향하였으며, 기반이 갖추어지자 숙종에게 사액을 청하여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흥성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진 뒤에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하였으며, 이제는 그 흔적조차 이득하기만하다.

물질문명이 주류를 이루는 현대사회에 어찌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뜻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복원을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단순한 건물의 복원이 아닌 그 활용방법까지를 모색한 발전적인 차원이기를 기원한다. 이왕이면 젊은 학생들을 위한 정신교육의 공간으로 재탄생 하였으면 더욱 좋겠다.

<參考 文獻>

『濯纓集』 『濯纓年譜』 『朝鮮王朝實錄』

-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 권경열, 「김일손의 산문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 연구』 20,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 김영숙, 「탁영 김일손 詞의 문학적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20, 1997.
- 김윤곤, 「탁영 김일손의 현실의식과 그 대응」, 『조선사연구』, 15, 조선사연구회, 2006.
- 김인숙, 『조선 4대 사화』, 느낌이 있는 책, 2009.
- 문범두, 「탁영 김일손의 「속두류록」 고 -기술 방식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 신태영, 「탁영 김일손의 불굴의 삶과 부」,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윤호준, 「탁영 김일손의 관처사 묘지명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9,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9.
- 이구의, 「탁영 김일손의 부에 나타난 정신세계1」, 『동방사상과 문화』 3, 2009.
- , 「탁영 김일손의 부에 나타난 정신세계2」, 『한국사상과 문화』 4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 정경주, 「성종조 신진사료문학의 시정비판과 그 문학의식 연구」,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조문주, 「탁영 김일손의 기문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 논문집』 16, 근역한문학회, 1998.
- 한국인물사연구원, 『빛빛 조선 4대사화 첫 번째 무오사화』, 도서출판 타오름, 2010.
- 이종범의 사립열전, 「김일손 당신의 죽음은 하늘의 시샘이었다」, 프레시안 연재.

Abstract

*Takyoung Kim Il Son and Dodong-Seowon / Cho Hang Deok**

This is to learn about Takyoung Kim Il Son(1464-1498) and Dodong-Seowon which is for worshipping him, located in Mokcheon in Chungcheongdo. Besides, I shed new light on Takyoung as a great man who is admired and a symbol of scholar for the development of Cheonan. Moreover, I also wish that we could recover Dodong-Seowon which is now remained with only some vestiges so that it could be used for teaching young men a traditional moral justice.

In the latter half of the 15th century, Jeseon Dynasty cleared away the old and sick Hungupa, the conservative force, and went through the period of change for the new morals and public order. In this harsh realities, Takyoung kept his integrity and looked upon himself as a pioneer with is fidelity for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society order.

He was a prominent men of the time. He succeeded Kim Jong Sik 's studies in Confucian atmosphere, and was grown as a man, who emphasized loyalty and justification, with historical consciousness. Also, he became a man of insight in overall politics through over 10 years of Ungansic and Sijongsic in government position. He, as a scholar seeking consistency of knowledge and behavior, tried to apprehend the society through the common people's eyes and considered appeasing the people as a key of politics. In particular, He wished for the nation to recover sprit of nation and get forward to the revival through "Make the History Right"

Even through he was excuted by Muosawha, he was a symbol and will of resist of the times despite his short life. Takyoungkum, which he was used to

* Cheonan Jungang High School, Teacher / whgkdejr@yahoo.co.kr

play, is a treasure to represent scholar's taste for the arts and his posthumous works have been received high praise.

Dodong-Seowon is built in the period of Injo of Joseon dynasty in Mokcheon, Chungcheongdo. According to Takyoungyeonbo, Takyoung, in his twenty four on April in 1487(18th years of Sungjong), had Mrs. Yean Kim, whose father is Kim Mi Son, as his second wife in Hoseo Mokcheon on July in 1489(20th years of Sungjong), Since then, he had lived in Mokcheon, and he built Jukriljungsa near the villa in the valley of Mountain Jakseong in 1492(23th years of Seongjong).

According to the other record, the Seowon is built in this place and it was when Hangang Junggu prepared the ground for the school, found Jukrim, whichk is Seokgak, and built Jukrimjungsa. It is not sure if it was built with Sawu, religious rite for Jusa, in turn, it was used for worshipping Takyoung Kim Il Son and Hangang Junggu, and used for Hucheon Whangjonghae as well in Injo Kichuk.

There is Seowon village, where the Dodong-Seowon was, in the southeastern valley of Mountain Ens 대k in Bukmyeon and Byeongchenmyeon in Cheonan, Chungcheongnamdo. It was called "Gaemok" but after Dodong-Seowon was built in Injo period, it was changed to Seowonri, became just a part of byeonchenri, and only the name of village is remained now.

【Key words】 Takyoung Kim Il Son, Muosawha, Dodong-Seowon,
Jukriljungsa, Hangan Jungsa, Hucheon Whangjonghae

투고일 : 5월 8일, 심사일 : 6월 12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